



## 植木日 각 R-TV에서 불조심 放送

全國山불 14건 · 公園헬기도 山불예방 계몽  
省墓用 安全 촛불이 나와야...

○.....지난 4월5일의 식목일은 날씨가 몹시 쌀쌀했다. 며칠전부터 북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탓인지 山불이 크게 걱정되는 날이었다. 식목일을 전후해서 山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산림청의 통계가 증명해주는데 금년은 이날 아침부터 각 방송·TV서 이점에 대한 계몽을 잘해주어 나무심기와 똑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었으리라...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헬기도 북한산 곳곳에서 山불예방 계몽방송을 전개.

그와같은 언론매체들이나 헬기까지 동원한 계몽에도 불구하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산불14건이 일어나 임야 약10만평을 태웠는데 거의가 성묘객의 촛불부주의였으며 성묘갔던 어린이의 불장난도 있어 「성묘용 안전촛불」이 발명되길.....

(本會學界會員의 自然公園운동)

## 植木日 “나무와 人間” 특집에

酸性雨는 李景宰교수 · 智異山은 吳求均교수

○.....이날 저녁7시~8시 KBS 1-TV “나무와 人間” 특집프로 대담에서 吳求均교수(호남大 조경학과 · 本會학계회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피력.

▲ 자연공원의 관리목표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開發과 利用」이나 우리나라 자연공원관리는 “保存과 利用의 適正도모”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과 利用”을 追求함으로써 公園指定의 근본적 가치인 資源의 훼손은 누적되어 자연공원가치가 상실되어 갈 것이다.

▲ 智異山국립공원에 반선-성섬재-천은사 도로가 나면서 심원계곡과 노고단일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성삼재 주차장개발, 벽소령관통도로 계획등은 智異山 생태계의 파괴, 능선부의 훼손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한편 동 프로에서 李景宰박사(서울市立大 조경학과 교수 · 本會 학계회원 · 대의원)는 최근 山林피해상이 증가되어가는 酸性雨에 대해 해설하면서 각종 피해상황을 설명. 李교수는 오랫동안 서울南山과 光陵을 비롯하여 各地의 산성우 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別項 토막自然관계자료 參照 <R>

## 有關團體消息

▲ (社)自然保護中央協議會(회장 鄭英昊) : 「제13회 자연보호세미나」를 6.26~28까지 仁川직할시와 공동주관, 내무부 후원으로 仁川시내(장소미정)서 개최할 예정이라 한다.

▲ (社)韓國自然保存協會(회장 金熏洙) : 5월24일 금년도 제1회 어린이 자연관찰회를 광능 임업연구원에서 갖는다. 대상은 서울시내 각국민학교 5~6년생.

▲ (社)洛東江保存會 : 지난 1월말 사무실을 釜山市 中區 동광동 4가 1-2(삼일여행사 2층)로 移轉. 電話 051-463-4571 · 466-5270

## 오는 9월

## 분당 시범단지부터 조사

## 전매자 철저히 적발코

건설부 신도시건설기획관은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신도시 아파트 불법전매등 투기조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금년 9월부터 시작될 분당시범단지 입주부터 당첨자 본인입주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가 아닌 전매자를 가려내 사직당국에 고발, 명단을 공개, 향후 주택재당첨금지등 엄격한 대응책을 세웠다한다.